

한국 아동빈곤율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화옥
경상대학교

아동빈곤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빈곤 예방을 위하여 아동빈곤에 대한 이해, 국가적 통계 생산, 관련요인 분석 등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4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적 아동빈곤율 및 빈곤아동인구 산정, 아동빈곤의 계층화, 그리고 아동빈곤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동빈곤의 계층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교차분석과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2003년 절대아동빈곤율과 상대아동빈곤율은 8.9%, 14.9%이고 각각의 인구규모는 102만명, 170만명으로 추정되었다.

아동이 1명이라도 있는 1,538가구를만 선택하여 절대빈곤선과 상대빈곤선을 근거로 극빈층, 차상위층, 비빈곤층으로 계층화하여 빈곤의 원인을 계층별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거주지역,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그리고 부모 취업형태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농어촌에 사는 조손가정이나 부자가정, 자녀가 많은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는 저학력의 맞벌이 부모가정이 가장 극빈층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으며, 자녀가 많은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는 저학력의 모자가정이 차상위층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용어 아동빈곤율, 아동빈곤계층화, 빈곤아동가구 특성, 아동빈곤원인

I. 서론

아동빈곤은 세계적인 추세이다(이배근, 2002). 국가의 경제수준을 막론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층이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경제력과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아동 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현재 26개 OECD 국가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처한 아동빈곤율은 평균 11.6%로 산정된다(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2005).

아동빈곤은 아동의 학업중퇴률, 10대 자살률, 아동방임, 알코올 중독, 비행, 10대 임신 등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ildren's Defense Fund, 2005; Buchel et al., 2003). 아동은 빈곤으로 인해 적절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고 성인이 된 후에 생산성이 저하되며 실업에 처할 위험을 높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구인회, 2003; Crosson-Towevvr, 2001; Gregg and Machin, 2003). 또한 아동은 빈곤으로 인해 가족해체를 경험할 수 있으며 경제적 박탈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그리고 심리적 박탈 등을 경험하게 된다(Korenman et al. 1995; Hill & Sandfort, 1995). 더구나 부모가 취업을 하고 있어 돌보아 줄 양육자가 없는 저소득층 아동들은 방임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될 위험을 안고 있고, 자존감 저하나 인간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느끼고 비행청소년으로 자랄 위험성이 높다. 아동은 특히 다른 연령층인 청장년층이나 노인에 비하여 빈곤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에서 '빈곤의 아동화(Juvenilization of Poverty)'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은 다른 복지분야에 비해서 사회적 관심이 미약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예산 중 아동을 위한 복지예산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당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 예산은 702억원인데 비해, 노인복지 예산은 5,692억원으로 아동복지 예산의 8.1배나 된다(보건복지부, 2007). 이를 1인당 복지비로 환산하면, 아동인구는 11,000천명이고, 노인인구는 4,200천명이므로 아동 1인당 복지비는 6,381원, 노인 1인당 복지비는 136,000원이 되는 셈이다(아동의 21배). 따라서 인구수를 고려했을 때 아동에 대한 복지수준은 더욱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극빈층을 위한 정책이어서, 빈곤아동에 초점을 둔 가족정책이 충실치 못하여 실제로 빈곤아동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장기실직빈곤층 등 절대적 빈곤층의 증가와 더불어 근로빈곤층과 같이 절대빈곤선을 가까스로 넘어서되 실질적으로 빈곤에 처할 취약성이 심한 상대적 빈곤층의 문제가 새로이 부각되었다. 빈곤의 확대 및 심화는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이슈화하여 빈곤규모 추정, 실태파악, 관련요인, 그리고 정책적 대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잠재빈곤아동 가구의 빈곤취약성 및 생활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전무하여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적절한 정책을 구상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때이다. 따라서 아동빈곤의 규모추정과 실태파악, 그리고 아동빈곤을 설명해 주는 관련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민간에서는 최근 들어 빈곤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매우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기관간의 연계활동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의 질과 효과성, 인력, 설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향후 사회를 이끌어 갈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이 아동에 적합하게 조성되고,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아동의 삶의 질 제고는 출산율 제고의 정책적 대안으로 접근될 수 있다.

시대적인 급박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동빈곤 연구는 역사가 일천하여 아동빈곤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 최근에 들어서야 일부 연구 및 학위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아동빈곤의 변화경향(류연규·최현수, 2003), 아동빈곤의 원인(이순아, 2004), 공·사적이전이 아동빈곤에 미치는 영향(이순아, 2004), 가구형태별 아동빈곤현황 비교(류연규·최현수, 2003; 이순아, 2004)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아울러 아동빈곤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자료가 미흡하다. 2005년 현재 30개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는 터키,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와 더불어 공식적인 아동빈곤수준에 대한 국가통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동 범위의 불일치로 공식적인 아동빈곤율조차 파악되지 못한 상황이다. 예로서 빈곤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가구소비실태조사」는 아동의 범위를 20세 미만으로 하고 있어 아동빈곤율이 과대 추정되는 문제를 갖고 있고, 「전국가계조사」는 농어가 및 단독가구를 제외하고 있어서 추계된 아동빈곤율이 대표성을 갖는 수치라고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하고 농어를 포함하는 대표성 있는 전국자료 사용을 통한 아동빈곤율 추계와 빈곤아동가구¹⁾ 특성을 비빈곤아동가구와 비교 분석하고 어떠한 요인이 아동빈곤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아동의 빈곤수준을 절대빈곤 및 상대빈곤으로 구분한 후 빈곤수준별 아동인구 규모추정과 구성비율 산정 등 빈곤아동 관련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빈곤아동 특히 상대빈곤층에 속한 아동인구가 절대빈곤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정책적 장치를 고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가족이 아니라 가구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유는 혈연관계나 심리적 관계보다 공동생활의 주거단위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보다 자세한 가족과 가구, 가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승권 외 2004,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82~86을 참조.

-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빈곤아동가구는 비빈곤아동가구와 대비하여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 빈곤아동계층별 아동빈곤가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를 통해서 빈곤아동가구의 특성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아동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아동빈곤의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

아동빈곤의 원인은 아동 자신보다는 아동이 속한 가구의 빈곤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즉,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속한 가구의 빈곤을 말하는 것이다. 빈곤의 원인규명을 시도한 선행연구들은 가구의 다양한 특성이 빈곤지위에 영향을 주는 지를 규명하였다. 연구대상 가구는 아동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구의 빈곤의 원인 규명을 통해서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의 원인을 유추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종합해 보았을 때 빈곤의 원인은 크게 가구특성(가구규모 및 가구유형),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고용관련 특성으로 축약될 수 있다. 우선, 가구특성 중 가구 규모와 관련해서 김교성(2002)과 황덕순(2002)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빈곤상태가 될 확률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구인회(2002)는 가구특성 중 6세 미만 아동의 존재로 인해서 배우자가 취업의 어려움을 갖게 되므로 가구가 빈곤에 처함을 발견하였다.

가구 특성 중 가구의 유형을 보면 부의 부재로 인한 편모가정의 경우, 즉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가 양부모가구보다 빈곤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황덕순, 2002; 석재은, 2004). 윤홍식·조막래(2006)는 18세 미만 아동의 존재 유무가 빈곤지위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그들은 18세 미만 자녀, 즉 아동이 증가할 때마다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약 8.4배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즉, 6세이거나 18세 이거나 간에 아동의 존재 자체가 부양부담으로 인해서 가구의 빈곤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판명된 요인에는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이 있다. 가구유형에서도 파악되었듯이 가구주의 성이 여성인 경우가 남성인 경우보다 빈곤할 확률이 더 높았다. 연령에 있어서는 약간 상이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가구주가 고연령이었을 때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김교성, 2002; 황덕순, 2002)가 있는 반면, 가구주가 저연령이거나 고연령인 경우가 중간연령인 경우보다 빈곤의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U자형)도 있다(안종범,

2002; 석재은, 2004). 연령을 그대로 모델에 사용하느냐 아니면 연령을 제곱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인적 자본 변수로서 교육수준과 빈곤가능성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안종범, 2002; 김교성, 2002, 구인회, 2002; 황덕순, 2002; 석재은, 2004; 이순아, 2005).

가구의 고용관련 특성에 있어서는 임시직 및 일용직일 경우(안종범, 2002; 이순아, 2005), 실업의 경우(구인회, 2002; 윤홍식, 2004), 사용직 임금근로자 비해서 자영자가, 자영자 대비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가 빈곤할 확률이 높았다(석재은, 2004).

종합하면 아동의 빈곤은 아동이 속한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저학력, 저연령이나 고연령과 가구유형으로 모부자가족, 가구특성으로 많은 가구원수와 6세미만 아동의 존재, 그리고 가구의 고용상태인 실업이나 미숙련 직종에 취업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적이전과 사회보험의 존재가 빈곤 완화의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특이한 사항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 달리 빈곤이 개인의 나태나 게으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일을 하지만 여전히 빈곤선 이하에 머무르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대두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아동빈곤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6세미만 아동의 존재가 가구빈곤의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된다는 점이다. 즉,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고, 보육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빈곤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교육을 통하여 계층의 상승이동이나 하강이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즉, 교육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편, 최근에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차상위 계층, 특히 아동이 있는 차상위계층의 삶은 극빈층의 삶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괄급여제도로써 현재와 같이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 라는 제도 하에서는 한번 수급자가 되면 영구히 수급자로 남게 한다. 특히 의료급여는 만성질환이나, 각종 질병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는 매우 커다란 혜택이 된다. 최급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 개편되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엄격한 수급자 혹은 확대된 의료급여 대상²⁾ 기준에 못 미쳐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 빈곤계층의 삶은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더구나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는 교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빈곤에 처할 위험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있는

2) 의료급여 수급자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가정에까지 의료급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차상위계층의 삶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절대빈곤층과 절대빈곤층이상 상대빈곤층에 속하는 가구를 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장애유무와 빈곤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거의 없다. 그런데 이현주 외(2005)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에 1명이라도 장애인이 있는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서 수급자로 책정되는 비율이 5배나 되고, 반면 일반가구 비율은 비장애가구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비장애: 71.7%; 장애가구: 48.4%). 특히 가구주가 장애인인 경우는 근로활동이 제약되므로 생활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부모의 장애여부는 빈곤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과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부와 모의 특성을 분리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부모는 모 중 어느 쪽의 영향으로 아동이 빈곤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모의 직업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연구와 달리 부모의 취업유형을 조합하여 부모 모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와 부모 임시직 및 일용직의 경우, 부만 취업한 경우, 모만 취업한 경우, 부모 모두 무직인 경우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밖에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못하였지만 주목하고 보아야 할 것이 아동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다. 도시거주이나 농어촌이나 따라서 아동빈곤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산업과 일반 및 복지자원이 풍부한 대도시가 농어촌보다는 빈곤아동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빈곤의 여성화를 규명한 석재은(2004)과 윤홍식·조막래(2006)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도시보다는 농어촌의 경우 아동빈곤확률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윤홍식·조막래(2006)는 이를 우리나라에서 일자리의 대도시 편중현상과 지역간 산업불균형 현상으로 인한 지역간 격차에 기인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구의 거주지역, 18세 미만 아동수 및 6세 미만 아동유무, 가족형태, 부모의 연령, 장애유무, 교육수준 및 직업유형이 빈곤여부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아동빈곤율, 빈곤, 차상위 및 비빈곤아동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실시한 「2004년도 국민복지육구조사」 1차가구조사와 2차가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구원의

정보와 가구의 수입 및 지출을 조사한 1차가구조사 자료를 통해서 아동빈곤율을 추계하였고, 가구원의 상세한 특성을 담고 있는 2차가구조사를 활용하여 빈곤, 차상위 및 비빈곤 아동가족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아동빈곤율 추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최현수(2003)가 최초로 아동빈곤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농어촌가구를 제외한 도시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아동을 18세 미만인 아니라 19세 이하의 인구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고, 2002년까지의 통계만을 제시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생산한 「2004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 1차가구조사」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가구도 포함하고 있어, 기존 자료의 한계를 극복한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 자료이다. 동 조사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구를 이용하여 섬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도의 3만 가구를 무작위 표본추출을 하여 소득 및 지출 등 사회계층을 파악할 수 있는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차 조사대상 가운데 소득계층에 따라 4,400가구를 비동일확률표집으로 표본추출한 후³⁾, 가구별 생활실태에 대해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 26,238가구 조사가 이루어졌고(조사원수율 87.6%), 2차 조사에서 3,541가구 조사가 이루어졌다(조사원수율 80.5%). 이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이 1명이라도 있는 1,538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우선 표집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전국을 단위로 하여 무작위 표본추출을 한 후 1차 조사대상으로부터 다시 무작위 표본추출을 하는 확률표집을 실행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분석결과는 전국으로 일반화가 가능하다는데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빈곤아동의 실태를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국내 관련 조사자료를 살펴보면,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의 가계조사와 패널조사,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실태 또는 욕구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가구소비실태조사는 농어촌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만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표본 대표성에 제한이 있다. 패널방식으로 실시되는 노동패널과 자활패널은 빈곤에 초점을 두는 것 보다 특정 욕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노동패널은 시계열자료를 제공하는 반면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고, 자활패널은 가장 포괄적인 표본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1차년도 조사가 실시된 상황이다. 그 외 차상위계층의 규모추계나 특정욕구에 치중한 조사도 있으나 다른 계층과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발생한다.

3) 이때, 수급가구 550가구,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 차상위계층 1,650가구,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80%미만 가구 1,650가구,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0% 이상 가구 550가구를 무작위 표본추출 하였다(이현주 외, 2005).

2. 변수의 정의

가. 아동빈곤율과 빈곤아동

아동빈곤의 실태파악과 관련요인 분석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아동 빈곤선 결정 및 그에 따른 빈곤수준 분류작업이다. 아동 빈곤선을 결정하는 일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빈곤선 결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빈곤을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으로 나누어서 접근한다. 절대빈곤이란 개별가구의 경제적인 능력이 기본적인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이고(김미곤·김태완, 2003), 상대빈곤이란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측정된 소득이나 소비수준으로 통상적으로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한다(구인회, 2003).

한편, 빈곤선은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경상소득을 지칭하는 절대빈곤과 절대빈곤선 이상이지만 하나 실질적으로 빈곤에 처하고 있거나 처할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법제도적으로는 이를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100% 이하, 120% 미만이면 각각 빈곤층, 차상위층으로 분류하며, 학자에 따라 편의적으로 최저생계비 130% 이상 180% 미만을 차차상위로 분류하기도 한다(이현주 외, 2005).

법제도적 지원망에 걸려지지 않은 채 빈곤 경계선 즉 한계적 빈곤층에 머무르고 있는 아동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아동인구의 실태나 가구특성 파악을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최근에 이현주 외(2005)는 차상위가구의 전체적 빈곤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복지욕구를 가진 아동인구 규모를 추정한 바 있다.

본 고에서는 빈곤아동 혹은 빈곤아동가구를 최저생계비 이하(절대빈곤선 이하)의 ‘극빈층’, 최저생계비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절대빈곤 이상 상대빈곤 이하)의 ‘차상위층’, 중위소득 50% 이상(상대빈곤 이상)의 ‘비빈곤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빈곤 대 비빈곤이라는 이분화 작업이 아닌 단계적으로 층화시키는 방식을 택하여 빈곤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빈곤의 단계적 접근은 빈곤해소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구분할 수 있어 정책적 접근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아동가구를 빈곤수준에 따라 계층화하여 절대빈곤 이하의 ‘극빈층아동가구,’ 절대빈곤 이상 상대빈곤 이하의 ‘차상위층아동가구,’ 그리고 상대빈곤 이상의 ‘비빈곤아동가구’로 분류한 후, 빈곤계층별 가구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서열 범주화된 아동가구의 빈곤계층이 종속변수가 된다.

2) 설명변수

일차적으로 아동빈곤 관련요인을 사회특성, 가구특성, 그리고 부모특성으로 구분하였다. 변수구분 및 측정은 표 1과 같다. 사회특성은 아동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포함하였으며 대도시, 농어촌, 중소도시로 구분하였다. 가구특성으로 가구내 아동수, 6세 미만 아동 유무, 가구유형을 포함하였다. 가구유형은 양부모가정, 부자가정, 모자가정, 조손가정, 기타 가정으로 구분하였다. 부모특성으로 부모의 연령, 장애유무, 교육수준, 그리고 취업여부를 포함하였다. 특히 부모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부모 모두 취업한 가정, 부만 취업한 가정, 모만 취업한 가정, 부모 모두 실업 또는 무직인 가정으로 구분하였으며, 부모가 취업하고 있더라도 모두가 임시직·일용직에 고용된 경우를 따로 구분하였다.

이 밖에 아동빈곤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여부, 주택소유형태 등을 살펴보았으나 이들 변수는 빈곤에 영향력을 갖기보다 빈곤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결과로 해석되므로 회귀분석에 투입하지 않았다.

표 1.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구분 및 측정

변수구분		변수명	측정
종속변수		빈곤수준	극빈층아동가구(1), 차상위층아동가구(2), 비빈곤아동가구(3)
독립 변수	사회특성	지역	대도시(1), 농어촌(2), 중소도시(3)
		가구내 아동수	아동(명)
	가구특성	6세 미만 아동	있음(1), 없음(2)
		가구유형	부자가정(1), 모자가정(2), 조손·기타가정(3), 양부모가정(4)
	부 특성	연령	만연령(세)
		장애유무	있음(1), 없음(2)
		교육수준	초등(1), 중(2), 고등(3), 전문대 이상(4)
	모 특성	연령	만연령(세)
		장애유무	있음(1), 없음(2)
		교육수준	초등(1), 중(2), 고등(3), 전문대 이상(4)
	부모취업 형태	취업형태	부모 임시취업(1), 부 취업(2), 모 취업(3), 부모 실업(4), 부모 취업(5)

주: 회귀분석에 투입할 때 마지막 범주가 준거집단이 됨.

다. 분석방법

사회특성과 가구특성, 부모특성, 부모취업형태와 아동빈곤계층과의 단순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관련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빈곤계층이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빈층,’ ‘차상위층,’ ‘비빈곤층’ 인 서열범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선형회귀분석인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즉 다항로짓모델(multinomial logit model)을 활용하였다.

다항로짓모델은 종속변수의 여러 범주 중에서 한 범주를 기준범주로 정하고 다른 범주를 기준범주와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종속변수의 결과가 기준범주에 비하여 다른 범주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원태연, 2004).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β_0 는 절편(intercept)이고, β_1 에서 β_p 까지는 로지스틱 회귀계수이며, X_1 에서 X_p 는 독립변수이다.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 항을 로짓(logit)이라고 하고, 이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인 오즈(odds)에 자연로그를 취한 것이다.

$$\ln [p(\text{사건발생})/1-p(\text{사건발생})]=\beta_0+\beta_1X_1+\dots+\beta_pX_p$$

종속변수가 J 개, 보통 3개 이상의 값을 가진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행할 경우 중복이 없는 로짓의 수는 $J-1$ 개가 된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로짓을 기준범주로짓(baseline category logit)이라고 하는데, 기준범주와 다른 범주를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빈곤가구’가 기준범주가 되어 극빈아동가구 대 비빈곤아동가구, 차상위아동가구 대 비빈곤아동가구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게 되는 것이다. 모수추정은 최우도법(maximum-likelihood method)을 통해서이다. 기준범주가 J 이고 i 번째 범주에 대한 추정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n [p(\text{범주 } i)/p(\text{범주 } J)]=\beta_{i0}+\beta_{i1}X_1+\dots+\beta_{ip}X_p$$

IV. 연구결과

1. 아동빈곤율

아동 빈곤율을 추계한 결과 2003년 절대아동빈곤율은 8.9%이었고, 상대빈곤율은 14.9%이었다(표 2 참조). 2003년 아동의 빈곤율은 성인빈곤율인 절대빈곤율 10.7%, 상대빈곤율 17.3%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아동이 있는 가구는 대부분 부모가 취업을 한 상태여서 일반가구보다 빈곤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성인에는 노인이 포함되어 있어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을 위한 공적 연금제도가

아직 노인들에게 적용되지 못한 상태이고 사적 보험 또한 발달되어 있지 못해서 노인의 빈곤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 추이는, 원자료의 상이함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최근에 상승하는 추세이다.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모두 상승하고 있어 아동빈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아동수로 환산하면 2003년 현재 절대빈곤아동수는 1,016,421명이고, 상대빈곤아동수는 1,701,649명이나 되는 셈이다. 즉 약 1백명에서 1백7십만명에 달하는 아동이 빈곤상태에 있는 것이다.

표 2. 아동빈곤율

(단위: 명, %)

년도	전체 인구수	18세 미만 아동인구수	18세 미만 아동인구비율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아동빈곤율	
					절대 아동빈곤율 ¹⁾	상대 아동빈곤율 ⁴⁾
1990	42,869,283	13,568,248	31.65	5.12	28.35 ²⁾	8.91 ⁵⁾
1995	45,092,991	12,886,203	28.58	5.89	7.48 ²⁾	8.74 ⁵⁾
2000	47,008,111	12,077,392	25.69	7.22	6.84 ²⁾	9.61 ⁵⁾
2003	47,849,227	11,420,464	23.87	8.31	8.90 ³⁾	14.90 ⁶⁾

주: 1) 전체 인구 중 가구경상소득(총소득-비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인 인구 비율

2) 최현수 추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사용(아동은 0~19세, 농어가는 누락됨)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생산한 「2004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함(아동은 18세 미만, 농어가 포함).

절대아동빈곤율(18세 미만) =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아동수/전체아동수 × 100

4) 가처분소득(총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전체아동인구 대비 중위소득 50% 이하인 아동인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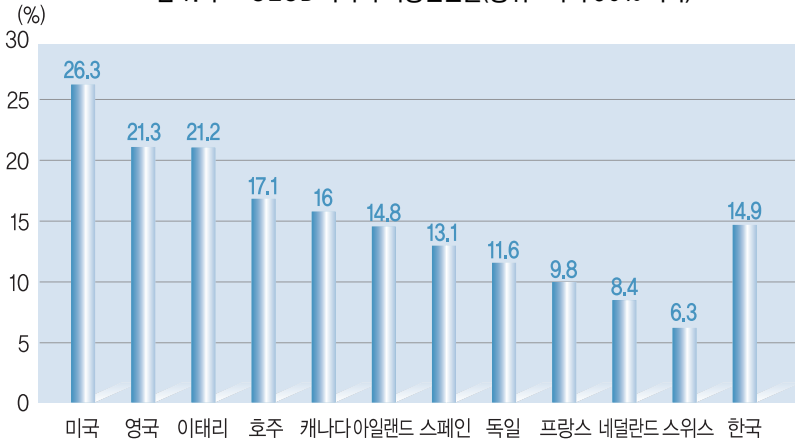
상대아동빈곤율(18세 미만) =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아동수/전체아동수 × 100

5) 최현수 추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사용(아동은 0~19세이하, 농어가 누락)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생산한 「2004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함(아동은 0~18세미만, 농어가 포함).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다른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치는 아니다. OECD에서는 빈곤율을 추계할 때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빈곤율을 사용한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1년의 경우 아동빈곤율은 미국 26.3%, 영국, 21.3%, 이태리 21.2%, 호주 17.1% 등으로 선진국에서도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3년 한국의 경우 상대아동빈곤율은 14.90%이므로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비교적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주: 외국은 2001년 통계치이나 한국은 2004년 국민생활실태 원자료를 통해 추계한 것으로 2003년 통계치임.
 자료: Bradbury B., and M. Jantti, Child poverty across twenty-five countries, Bruce Bradbury, Stephen P. Jenkins, and John Micklewright (eds.) The Dynamics of Child Poverty in Industrialised Count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70(외국).

2. 아동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결과 만18세 미만 아동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1,538가구로 전체 가구의 43.9%를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8.1%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상소득을 가진 절대빈곤가구였고 14.9%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상대빈곤가구였으며 나머지 85.1%는 비빈곤가구였다. 이를 계층화하여 절대빈곤가구를 극빈아동가구, 절대빈곤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상대빈곤가구를 차상위아동가구, 그리고 나머지 가구를 비빈곤아동가구로 분류하였으며 해석을 위하여 아동극빈층, 아동차상위층, 아동비빈곤층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표 3에서 아동가구의 가구특성이 빈곤과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역적으로는 농어촌에서 빈곤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극빈층 비율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2배가 넘는다. 또한 대도시는 중소도시에 비해 빈곤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족유형의 지역적 편포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빈곤가정의 하나인 조손가정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모자가정은 대도시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chi-square=37.85, p.001).

가구의 아동 수는 빈곤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가구의 아동 수를 살펴보면 아동이 2명인 가구가 가장 많으며 극빈층과 차상위층을 포함하여 빈곤층의 경우도 아동이 2명인 가구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아동이 4명 이상인 가구는 극빈층과 차상위층을 포함하여 빈곤층에 속한 비율이 높지만 절대수가 매우 작았다.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비빈곤층에 해당하는 비율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는데,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된 가설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 이유를 모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6세 미만 아동의 유무와 모의 경제활동 참여와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6세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 모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25.4%로 6세 미만 아동이 없는 경우 모의 경제활동 참여율 41.0%에 비해 낮았다(chi-square=55.91, p.001). 즉 6세 미만 아동이 있음으로 해서 아동보육을 이유로 모의 취업에 지장이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제활동 참여유형을 살펴보면 6세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 모가 상용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아동보육에 큰 부담이 없음을 보여준다(chi-square=55.91, p.001). 즉 모가 상용직에 더 많이 종사함으로써 아동출산과 보육에 제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세 미만 아동이 있더라도 시설이용이나 비용 등 아동보육에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6세 미만 아동이 없는 모의 직종을 살펴보면 상용직·고용주·자영업에 비해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아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떨어져 빈곤과 상관성이 큼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6세 미만 아동이 있음으로 해서 지출되는 보육비 부담이 가구전체의 빈곤성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하기보다 가구주의 취업여부와 소득수준이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출이 따라서 증감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 3. 아동가구유형별의 사회 및 가구특성

	극빈층 아동가구	차상위층 아동가구	비빈곤 아동가구	전체	χ^2
지역					
대도시	7.5	7.1	85.3	100.0(742)	18.24***
중소도시	6.2	5.7	88.1	100.0(548)	
농어촌	14.1	8.5	77.4	100.0(248)	
가구내 아동수					
1	7.7	7.2	85.0	100.0(555)	14.99
2	8.4	6.5	85.1	100.0(784)	
3	7.4	6.9	85.6	100.0(188)	
4+	16.8	16.7	66.7	100.0(12)	
6세 미만 아동 있음	6.2	6.5	87.3	100.0(662)	6.60*
없음	9.7	7.1	83.2	100.0(876)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5.2	4.0	90.8	100.0(1,376)	358.07***
부자가정	29.6	29.6	40.7	100.0(27)	
모자가정	29.5	38.6	31.8	100.0(44)	
조손가정	40.9	20.5	38.6	100.0(44)	
기타가정	30.4	34.8	34.8	100.0(46)	
전체	8.1(125)	6.8(105)	85.1(1,307)	100.0(1,538)	

주: 전체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음.

* p<.05 ** p<.01 *** p<.001

아동가구의 가족유형은 빈곤층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다. 양부모가정을 제외하면 모든 가족유형에게서 빈곤층에 해당되는 비율이 59.3%~69.2%에 달하고 있다. 특히 조손가정의 경우 극빈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은 극빈층 비율은 비슷하나 모자가정은 차상위층 비율이 가장 높아 극빈층과 차상위층을 포함하였을 때 10가구 중 7가구가 빈곤층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 4에서 아동가구의 부모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대, 장애유무, 교육수준, 경제활동참여 형태 모두가 빈곤계층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빈곤층일 확률이 점차 커지며, 특히 모의 연령대가 중고령층이면 극빈층 비율이 더 높았다. 부모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가 없는 경우에 비해 빈곤층일 확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에게 장애가 있으면 극빈층인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부 대부분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로 장애가 있으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지장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 모두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빈곤층을 벗어날 확률이 일관성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경제활동참여는 빈곤계층을 뚜렷하게 결정하고 있다. 부가 무직·실업이면 33.8%가 극빈층이며 18.3%는 차상위층으로 절반 이상이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취업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용직에 종사할 경우 빈곤층 비율이 2.3%를 넘지 않으나 임시직·일용직일 경우 무려 21.5%가 빈곤층에 달한다. 모가 경제활동참여형태는 빈곤여부를 크게 구분 짓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경제활동으로 얻어지는 소득이 부에 비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흔히 부차적 가계수입원(secondary income earner)으로 가름되기 때문에 빈곤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따라 ‘부모 모두 취업’, ‘부만 취업’, ‘모만 취업’, ‘부모 모두 실업·무직’으로 구분하고, 임시직·일용직의 빈곤층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부모가 모두 취업하였더라도 모두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할 경우를 따로 범주화하여 빈곤계층과 상관성이 있는지 살펴 본 결과, 부모 모두 무직·실업일 경우 빈곤층에 머무를 확률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 부모 모두 일하는 맞벌이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라도 상용직·자영업·고용주 형태이거나 부만 일하는 단독별이일지라도 상용직·자영업·고용주 형태이면 빈곤하지 않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모만 일하는 단독별이일 경우 극빈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모자가정의 빈곤을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맞벌이일지라도 부모의 취업형태가 모두 임시직·일용직일 경우 부모 모두 무직·실업 다음으로 빈곤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유무가 빈곤에 있어 단연 결정적인 요소이고 다음으로 단독별이 맞벌이를 불문하고 부의 취업형태가 빈곤을 유의미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주목할 점은 맞벌이부모의 취업형태가 임시직·일용직일 경우 차상위층 비율이 극빈층 비율보다 더 높다는데 있다.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실업할 가능성이 높고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정부시혜에서 배제되어 극빈층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모가 모두 일하되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구성 비율이 본 연구에서도 15.8%에 달하고 있어 정책적

관심이 긴급히 요구된다.

표 4. 아동가구유형별 부모특성

	극빈층 아동가구	차상위층 아동가구	비빈곤 아동가구	전체	χ^2
부 연령대					
청년(~34)	2.9	3.6	93.6	100.0(280)	1647**
장년(35~49)	6.1	4.1	89.8	100.0(977)	
중고령(50~64)	8.2	9.6	82.2	100.0(146)	
모 연령대					
청년(~34)	5.3	5.8	88.9	100.0(531)	15.97**
장년(35~49)	5.5	3.7	90.9	100.0(821)	
중고령(50~64)	14.0	10.5	75.4	100.0(57)	
부 장애여부					
장애 있음	19.4	15.3	65.3	100.0(72)	37.46***
장애 없음	5.7	5.0	89.2	100.0(1,375)	
모 장애여부					
장애 있음	13.3	16.7	70.0	100.0(30)	10.28**
장애 없음	6.3	5.3	88.4	100.0(1,417)	
부 교육수준					
초등 이하	23.1	16.9	60.0	100.0(65)	106.37***
중학교	11.7	9.9	78.4	100.0(111)	
고등학교	5.5	5.5	89.0	100.0(582)	
전문대 이상	3.1	1.2	95.7	100.0(644)	
모 교육수준					
초등 이하	21.4	15.5	63.1	100.0(84)	84.69***
중학교	7.7	7.1	85.1	100.0(168)	
고등학교	5.0	4.6	90.4	100.0(757)	
전문대 이상	2.8	1.5	95.7	100.0(398)	
부 직종					
상용직	0.4	1.7	97.8	100.0(688)	227.66***
임시직·일용직	10.5	11.0	78.5	100.0(228)	
고용주·자영업	7.0	3.4	89.7	100.0(417)	
무직·실업	33.8	18.3	47.9	100.0(71)	
모 직종					
상용직	0.6	1.1	98.3	100.0(176)	18.28**
임시직·일용직	5.7	5.3	89.0	100.0(245)	
고용주·자영업	3.4	3.4	93.1	100.0(58)	
무직·가정종사자	6.8	5.3	87.9	100.0(928)	
부모 취업형태					
부모 취업형태1	1.7	2.0	96.4	100.0(357)	305.42***
부모 취업형태2	12.9	14.9	72.2	100.0(248)	
부만 취업	3.9	2.8	93.3	100.0(779)	
모만 취업	15.0	10.0	75.0	100.0(20)	
부모 무직·실업	51.2	27.9	20.9	100.0(43)	
전체	5.7(80)	4.7(66)	89.6(1,261)	100.0(1,447)	

주: 1) 기타 가정은 3세대 가정, 모자가정 혹은 부자가정에 조부모가 있는 가정, 소년소녀세대 가정 등을 포함함.

2) 취업형태1=부모 가운데 한명이라도 상용직·자영업·고용주일 경우, 취업형태2=부모 모두 임시직·일용직일 경우.

3) 전체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음.

* p<.05 ** p<.01 *** p<.001

표 5에서 아동가구의 빈곤계층별 월평균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확연한 격차가 드러난다. 차상위층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극빈층의 2배, 비빈곤층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극빈층의 5배 이상, 차상위층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었다.

조사시점의 전년도인 2003년에 기초생활보장을 수급한 비율은 전체 가구의 4.2% 밖에 되지 않으나 빈곤층에 해당되는 가구의 3/4 이상이 수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율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문제는 빈곤층에 해당되나 기초생활보장을 수급하지 않은 177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수의 2.7배를 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사회적 시혜에서 배제되고 있는 빈곤층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극빈층의 1/3 정도가 월세에 살고 있으며, 특히 차상위층의 경우 월세에 사는 비율이 38.1%로 극빈층보다 더 높았다. 차상위층의 경우 월세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분명 높을 것이므로 극빈층으로 이전될 수 있는 위험성이 단연 커지게 된다. 따라서 차상위층의 주거복지를 제고할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5. 아동가구유형별 사회복지특성

특성	극빈층 아동가구	차상위층 아동가구	비빈곤 아동가구	전체	F ratio/ χ^2
월평균경상소득(만원)	60.4	120.9	327.9	291.2	120.54***
기초보장(생활보호)					
수급	23.8	23.6	0.8	4.2(65)	256.36***
비수급	76.2	76.4	99.2	95.8(1,474)	
사회복지서비스					
수급	23.2	25.5	2.3	5.6(86)	179.68***
비수급	76.8	74.5	97.7	94.4(1,452)	
주택소유형태					
자가	41.3	35.2	59.2	56.1(862)	102.97***
전세	15.9	22.9	22.5	22.0(338)	
보증부월세	23.0	28.6	9.0	11.5(176)	
월세	8.7	9.5	2.0	3.1(47)	
기타	11.1	3.8	7.4	7.4(114)	
전체	100.0(126)	100.0(105)	100.0(1,307)	100.0(1,538)	

주: 전체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음.

* p<.05 ** p<.01 *** p<.001

3. 아동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

표 6은 아동가구의 빈곤계층과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가구특성, 부모특성, 부모취업유형 등 관련변수를 투입하여 다항로지분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종속변수인

아동가구의 빈곤계층은 ‘극빈층’, ‘차상위층’, ‘비빈곤층’의 세 범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가 세 개이고, 기준범주가 ‘비빈곤층’이므로 두 종류의 회귀계수 값이 나타나고, 첫번째 회귀계수는 ‘극빈/비빈곤’, 두 번째 회귀계수는 ‘차상위/비빈곤’의 비교 값이 된다. 추정된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는 -2Log 우도가 1,072.9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인 Cox & Snell's R2는 0.274로 투입된 모든 설명변수의 설명력이 27.4%에 달했다.

첫 번째 열에서 극빈 대 비빈곤에 대한 다항로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 아동 수, 가족유형, 부의 연령, 장애유무, 그리고 교육수준, 모의 교육수준, 그리고 부모직업유형이 아동가구의 극빈층을 비빈곤층으로부터 판별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어촌에 사는 아동가구는 중소도시에 사는 아동가구에 비해 극빈층에 속할 확률이 비빈곤층에 속할 확률보다 2.42배 더 높고, 가구내 아동이 1명씩 늘어날수록 극빈층에 속할 확률이 1.76배씩 증가하게 된다. 부자가정과 조손·기타가정이 양부모가정에 비해 극빈층에 속할 확률이 각각 15.89배, 3.54배에 이르고 있다.

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극빈층에 속할 확률이 5.1%씩 떨어지지만, 장애가 있으면 극빈층에 속할 확률이 비빈곤층에 속할 확률보다 2.67배 더 높았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이 초등학교와 같이 낮으면 극빈층에 속할 확률이 훨씬 높았으며, 부모가 모두 무직·실업일 경우 부모 모두가 취업한 경우에 비해 극빈층에 속할 확률이 비빈곤층에 속할 확률보다 무려 67.39배 높았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취업하였더라도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할 경우 극빈층에 속할 확률이 오히려 11.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농어촌에 사는 조손가정 혹은 부자가정,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는 저학력 맞벌이 부모가정이 극빈 위험성에 처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두 번째 열은 차상위 대 비빈곤에 대한 다항로지분석 결과이다. 아동 수는 1명씩 늘어날수록 차상위층에 속할 확률이 비빈곤층에 속할 확률에 비해 1.55배씩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은 극빈층 대 비빈곤층과 달리 차상위층을 비빈곤층으로부터 판별하는데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상실하였다.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은 양부모가정에 비해 차상위층에 속할 확률이 비빈곤층에 속할 확률보다 각각 9.44배, 5.78배 더 높았다.

부의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차상위층에 속할 확률이 점차 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모가 장애가 있을 경우 없을 경우에 비해 차상위층에 속할 확률이 비빈곤층에 속할 확률 보다 3.75배 더 높았으며, 모가 초등학교 학력일 경우 중·고등학교 학력 이상에 비해 차상위층에 속할 확률이 3.90배 더 높았다. 부모 모두 무직·실업이거나 혹은 모두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할 경우 부모 모두 취업한 경우에 비해 차상위층에 속할 확률이 비빈곤층에 속할 확률보다 각각 17.83배, 6.15배 더 높았다. 또한 모만 취업한 경우 차상위층에 속할 확률이 8.67배나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지역을 불문하고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는 저학력의 다자녀 모자가정이 차상위층에 속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차상위층 대 비빈곤층의 분석에 앞서 이루어진 극빈층 대 비빈곤층의 분석과 비교해 보면, 가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의 특성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특히 모자가정, 모 장애유무, 모 단독취업은 앞서 극빈층에 속할 확률이 있어서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얻지 못했으나 차상위층에 속할 확률이 있어서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획득하였다. 즉 모의 가족유형, 장애유무, 교육수준, 취업유형 등의 특성이 차상위층을 비빈곤층과 분류하는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는 저학력의 다자녀 모자가정이 차상위층과 같은 잠재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이들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제도가 확보되지 않은 한 절대빈곤으로 이전할 위험성이 극대화됨을 짐작할 수 있다.

표 6. 빈곤아동가구 계층화에 대한 다항로지분석

	극빈층아동가구/ 비빈곤아동가구		차상위층아동가구/ 비빈곤아동가구	
	β	Exp(B)	β	Exp(B)
상수	-5.267		-5.713	
사회특성: 지역(중소도시 기준)				
대도시	0.204	1.226	0.374	1.454
농어촌	0.882**	2.415	0.292	1.339
가구특성				
18세 미만 아동수	0.571**	1.757	0.442*	1.551
6세 미만 아동(유)	-0.321	0.728	0.221	1.247
가족유형(양부모가정 기준)				
- 부자가정	2.779***	15.892	2.245**	9.440
- 모자가정	0.755	2.131	1.754*	5.779
- 조손·기타가정	1.269*	3.543	0.011	1.011
부 특성				
연령	-0.053**	0.949	0.001	1.001
장애유무	0.971*	2.672	0.665	1.944
교육수준(전문대 이상 기준)				
- 초등학교 이하	1.729***	5.611	1.793**	6.010
- 중학교	0.926*	2.590	1.356**	3.881
- 고등학교	0.418	1.497	1.119**	3.061
모 특성				
연령	0.022	1.022	-0.020	0.980
장애유무	0.934	2.544	1.274*	3.574
교육수준(전문대 이상 기준)				
- 초등학교	1.243*	3.446	1.361*	3.899
- 중학교	0.456	1.515	0.763	2.144
- 고등학교	-0.092	0.918	0.301	1.351
부모취업형태(1인 정규직 기준)				
부모 임시직·일용직	2.437***	11.180	1.1817***	6.151
부만 취업	1.113*	3.012	0.507	1.661
모만 취업	1.153	3.128	2.159**	8.667
부모 무직·실업	4.224***	67.387	2.881***	17.829
유효수(N)	1,498			
-2LL	1072.938***			
Cox & Snell R ²	0.274			

주: * p<.05 ** p<.01 *** p<.001

V. 논의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2004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아동빈곤율 및 빈곤아동수 추정, 그리고 아동가구의 빈곤계층 분류와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아동의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은 각각 8.9%, 14.9%에 이르렀으며, 빈곤율에 따라 절대빈곤아동수는 2003년 현재 102만명, 상대빈곤아동수는 170만명 정도로 추정되었다. 또한 아동이 1명이라도 있는 1,538가구만을 선택하여 절대빈곤선과 상대빈곤선을 근거로 극빈층, 차상위층, 비빈곤층으로 계층적으로 분류화한 결과, 각각 8.1%, 6.8%, 85.1%를 구성하고 있었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아동빈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들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지역,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취업형태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농어촌에 사는 조손가정이나 부자가정, 자녀가 많은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는 저학력의 맞벌이 부모가정이 가장 극빈층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으며, 자녀가 많은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는 저학력의 모자가정이 가장 차상위층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가구 내에 6세 미만 아동의 존재는 극빈층과 차상위층을 비빈곤층으로부터 판별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모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 6세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 모가 상용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비용이나 시설 등 보육에 있어 부담이 없는 반면, 6세 미만 아동이 없는 모는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전체적인 가구소득이 떨어짐으로 해서 빈곤과 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문제를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이슈가 된 저출산율과 연관해서 볼 수 있다. 부모가 고용안정성과 고소득을 보장해 주는 상용직·고용주·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는 부모에 비해 보육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아동출산을 기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은 빈곤층 특히 근로빈곤층인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는 맞벌이부모에게 아동보육을 위하여 저렴하고 보육의 질이 담보되는 보육시설 공급이 증가해야 하고, 수요가 많은 공보육시설의 공급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둘째,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에서 보육아동의 존재는 오히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앞서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은 각각 33.3%, 26.7%로 부자가정에 있는 보육아동의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Chi-square =27.94, $p < .001$). 부자가정에서 아동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아동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따라서 부자가정에 초점을 두어 특정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하겠다. 방과후 아동보육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데에 주 목적을 두고 있다(김재인·이향란, 2004).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부모에게 있지만 부모가 여러 가지 여건 상 아동을 보호할 수 없을 때 사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아동양육에 부모와 사회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다(김재인·이향란, 2004).

셋째, 모자가정의 극빈층 비율은 부자가정에 비해 그리 높지 않으나 차상위층 비율이 39.8%로 어느 가족유형 보다 높아 극빈층과 차상위층을 포함하였을 때 10가구 중 7가구가 빈곤층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자가정이 이처럼 차상위층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은 것은 모가 가진 여러 가지 특성이 차상위층을 비빈곤층으로부터 판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모의 저학력, 장애, 단독취업, 그리고 임시직·일용직 종사는 차상위층에 속할 확률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모자가정의 경우 여러 생활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에서 우선 대상으로 선별되도록 함으로써 아동빈곤의 위해를 경감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만 단독 취업했을 경우 빈곤수준이 높다는 것은 고용시장의 성 편향성을 노출시키는 것이므로 소득수준이나 고용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성경제활동의 질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초생활보장을 수급하지 않은 가구 가운데 약 1/10이 빈곤층에 해당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을 수급하는 가구 수에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빈곤선 이하의 열악한 경제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사회적 시혜에서 배제되고 있는 빈곤층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차상위층의 가족수를 고려하면 극빈층으로 이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평균가족수-극빈층; 차상위층; 비빈곤층=3.8; 3.7; 4.0, $F=6.401$, $p<.001$).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조의 탈빈곤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부조 보다 데모그란트가 아동빈곤율에 효과가 매우 크다는 연구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수당제도 도입 등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Sherman, 2005: Children's Defense Fund에서 재인용).

또한 맞벌이부모의 취업형태가 임시직·일용직일 경우 차상위층 비율이 극빈층 비율보다 더 높다는데 있다. 이는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실업할 가능성이 높고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정부시혜에서 배제되어 극빈층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모가 모두 일하되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구성 비율이 본 연구에서도 15.8%에 달하고 있어 정책적 관심이 긴급히 요구된다. OECD에서는 아동빈곤 탈피를 위한 방안으로 모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Forster and d' Ercole, 2005; Solera, 2003).

마지막으로 아동에 대한 인적자본투자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2006년에 '사회투자국가'를 선언하면서 기존의 아동정책을 재조명하고 보완 및 강화하였다. 아동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서

미래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아동을 돌보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려는 이중의 목표를 갖고 있다. 아동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아동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의 미래가 된다. 선진국에서도 아동, 특히 빈곤아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사회의 발전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투자사업으로 선정한 사업도 빈곤아동과 관련한 것으로 첫째 모든 아동의 평등한 출발과 잠재역량 발현을 위한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희망스타트 프로젝트(한국형 Head Start), 둘째 아동의 미래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가 사업, 아동인지능력 향상 사업 등이 있다. 다양한 아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빈곤의 세습고리를 끊고, 건강하게 자란 아동은 향후 우리 사회의 귀중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미숙은 미국 Purdue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팀장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빈곤, 가족복지, 자산형성과 탈빈곤 분야이며, 현재 아동빈곤실태, CDA 모니터링, 결식아동 지원방안 등을 연구중이다(E-mail: mskim@kihasa.re.kr).

배화옥은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학대, 아동빈곤, 학교사회복지이며, 현재 아동학대 재발생, 아동빈곤 결정요인, 형제폭력 등을 연구하고 있다(E-mail: hobae@nongae.gsnu.ac.kr).

참 고 문 헌

- 구인회(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2.
- _____(2003). 경제적 상실과 소득수준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3(5), 7-29.
- 김교성(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3), 113-149.
- 김미곤·김태완(2004). 우리나라의 빈곤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발표논문*.
- 김재인·이향란(2004). 외국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류연규·최현수(2003).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과 변화경향: 1982~2002년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아동복지학*, 16, 135-165.
-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 석재은(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 167-194.
- 안종범·김철희·전승훈(2002).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25(1), 75-95.
- 원태연(2004). *통계조사분석*. 서울: SPSS 아카데미.
- 윤홍식(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2), 5-28.
- 윤홍식·조막대(2006).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가구특성과 빈곤실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도 추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315-320.
- 이배근(2002). 세계의 아동빈곤. *국제문제논총*, 12-13.
- 이순아(2005). 아동의 빈곤실태와 공·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 가구유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석사학위 논문*.
- 이현주·백화중·신영석·박능후·이선우·홍경준 외(2005).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6). 2005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최현수(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 황덕순(2002).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정진호 외(편),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88-124.
- Bradbury, B., & Jantti, M. (2001). Child poverty across twenty-five countries, in Bruce Bradbury, Stephen P. Jenkins, and John Micklewright (eds.), *The Dynamics of Child Poverty in Industrialised Countries*,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62~91.
- Buchel, F., Joakim, F., Krause, P., & Wagner, G. (2003). Impact of poverty on children's school attendance: Evidence from West Germany. in K. Vleminckx & T. M. Smeeding (eds),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 (pp. 151-174). Bristol, U.K.: The Policy Press.
- Children's Defense Fund. (2005). *The State of America's Children*.
- Crosson-Tower, C. (2001). *Exploring Child Welfare: A Practice Perspective*.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Forster, M., & d'Erocole, M.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22*, DELSA/ELSA/WD/SEM(2005)1.
- Gregg, P., & Machin, S. (2003). Childhood experiences, educational attainment and adult labour market performance. in K. Vleminckx, K. and T. M. Smeeding(eds),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pp. 129-150). Bristol, U.K.: The Policy Press.
- Hill, M., & Sandfort, J. (1995). Effects of Childhood Poverty on Productivity Later in Life: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1/2), 91-126.
- Korenman, S., Miller, J., & Sjaastad, J. (1995). Long-term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LS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1/2), 127-155.
- Solera, C. (2003). Income transfers and support for mothers' employment: the link to family poverty risks, in K. Vleminckx, & T. M. Smeeding (eds),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 (pp. 459-484). Bristol, U.K.: The Policy Press.
-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2005). *Child Poverty in Rich Countries*, Report Card No.6.

Child Poverty in Korea : Its Magnitude and Causes

Meesook Ki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wa-ok Ba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ild poverty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s in the era of economic affluency. In order to prevent child poverty, we need to understand its size, produce national statistics, and find correlates and/or factors in relations with child poverty.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both absolute and relative child poverty rates in Korea and find factors affecting it using the National Social Life Survey in 2004. We found that the absolute child poverty rate and the relative child poverty rate amounted to 8.9% and 14.9%, respectively, and the number of children living below the absolute poverty line and the relative poverty line are approximately 1.02 million and 1.7 million, respectively.

This study classified 1,538 households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two poverty lines, such as extreme poverty, second level poverty, and no poverty. We found that region, age, education, occupation and the disability of parents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child poverty.

In conclusion, children living with grandparent(s), single fathers with poor education and under-employment, rural residents, and dual-earner families with low education and part-time employment were most likely to fall into extreme poverty; and single mothers with poor education and part-time employment were most likely to fall to second level poverty.

KEY WORD

child poverty rate, classification of child poverty,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with poor children, causes of child poverty